

새 책

▶안녕, 나의 빨강머리 앤(백영옥 지음)=이 책은 30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의 두 번째 이야기다. 아르테 출판사와 니폰에니메이션의 독점계약으로 화제를 일으키며 국내 도서시장의 캐릭터 에세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었던 첫 번째 작품에 이어 작가는 빨강머리 앤의 프리퀀이자 앤의 어린 시절을 다룬 '안녕, 앤'을 주제로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는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한 메시지를 전한다. 밀리오리지널, 1만4000원.



▶피고 지고 꿈(강정화 지음)=10년 차 대학 강사인 저자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에세이다. 대학원생에서 시간강사로, 은둔이 차가워질 정도로 긴장한 첫 강의, 전날 잠이 안오고 음식도 먹히지 않던 단발성 강의, 한 아이의 엄마에서 다시 강단에 서게된 순간 등 저자가 겪은 삶의 이야기를 적었다. yeondoo, 1만4000원.



▶빌레드(살렛 브론테 지음·조애리 옮김)=제인 에어로 널리 알려진 영국 작가 살렛 브론테의 마지막 작품으로 창비 세계문학(81·82권)으로 발간됐다. 여성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억압하던 시대에 혈혈단신으로 타국의 낯선 도시로 가 삶을 개척해나가는 주인공을 통해 당대 독선 여성의 현실과 삶, 열망과 고뇌를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창비, 각 1만5000원.



▶비타와 버지니아(세라 그리스트 우드 지음·심혜경 옮김)=비타 색빌-웨스트는 20세기 초 영국의 작가이자 시싱허스트라는 정원을 만든 사람이다. 버지니아 울프와 짧지만 열렬한 사랑을 나눴고, 그녀의 소설 '올랜드'의 모델이었던 여인이다. 이 책은 비타와 버지니아 울프, 두 사람의 삶과 사랑 그리고 그들의 공간에 관한 이야기다. 뮤진트리, 1만7000원.



▶내아이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법(고경희 지음)=공부는 안하고 게임만 하는 아이, 말만 하면 짜증내고 화내는 아이 앞에서 속앓이하는 부모에게 저자는 자기가 어떻게 두 아이를 대화로 바르게 키웠는지 소개하고 있다. 아이들의 개인적 특성과 마음을 헤아리고 상황에 맞게 공감·소통하는 법을 알려주며, 대화로 아이가 자기주도적인 행복한 삶을 살게 한 실제 이야기가 담겨있다. 파스한이야기, 1만1700원.



▶나를 찾아서(변예슬 지음·그림)=깊은 바다 속, 줄을 지어 가는 물고기 떼 속에서 한 아이가 밝게 빛나는 빛에 이끌려 대열을 이탈한다. 빛을 쫓아간 곳에는 반짝이는 것들로 가득했다. 자신도 빛나고 싶다고 생 각한 아이가 붉은색 보석에 입을 맞추자 이내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투명했던 자신의 색을 잃어버리지도 못한 채, 이 책의 주인공 아이는 여정의 끝에서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한 뒤 어울리지 않는 낯선 색들을 모두 뱉어내며 비로소 자신만의 빛을 찾게 된다. 길벗어린이, 1만6000원. 송은빛기자



제주에 온 예멘인, 그들로 시작된 질문들

'난민×현장'의 '난민, 난민화되는 삶'

난민 혐오 확산 연구 계기 난민화된 삶의 연결 살펴

2018년 6월 제주에 예멘인 500여 명이 다다랐다. 그들은 '예멘 난민'이라는 집단으로 불렸다. 이전에도 한국으로 입국한 난민이 있었지만 대중들이 난민을 우리 사회의 일로 여길 정도로 이슈가 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 일로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청원에 71만 명이 참여하는 등 혐오 발화가 확산되는 모습이 드러났다.

우리사회가 지녀온 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기피의 시선이 난민으로 향해가던 시점에 연구자·활동가들이 모인 프로젝트 그룹 '난민×현장'이 탄생했다. 사상적·문화적·역사적으로 난민화되는 몸들이 놓인 상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을 벌여온 이들이 그 여정을 담아낸 '난민, 난민화되는 삶'을 냈다.

이 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난민화된 삶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쇄되어 있는가를 살폈다. 난민을 최근의 문제로만 보거나 난민을 국민국가 비판으로만 파악하는 시도를 벗어나 그것을 난민화되어가는 각자의 경험과 삶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이끈다.

이지은의 '민족국가 바깥에서 등장한 '위안부', 그녀들의 귀향의 거부 혹은 실패'는 1991년 이전 위안부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때에 자신의 위안부임을 증언했던 오키나와의 배봉기, 태국의 노수복, 월남의 배옥수의 증언에 초점을 맞췄다. 필자는 여성혐오의 서사로 끊임없이 예곡, 누락되어온 그들의 증언을 이제는 제대로 들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지영·심아정·이지은·전솔비가 함께 쓴 '지금-여기에 '로hing'야'는 어떻게 도착해 있나'는 로hing야 난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



응을 분석하고 있다. 아시아의 식민주의 속 인종차별이 시민권의 부여와 어떻게 연동하고 있는지 파고 들었고 향후 난민의 재현이 어떠해야 하는지 역사와 현재의 경험 속에서 조명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사회의 난민과 마주하고 난민화된 삶을 사유한 여러 글들은 '우리가 난민이다'거나 '난민은 남일이다'를 말하지 않는다. 피해와 가해의 구조를 개인에 환원하지 않고 자본주의와 군사주의의 큰 틀 안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갈무리, 2만4000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땅에서 자란 초록초록 야채들의 친화력

소설가 한은형의 '오늘도 초록'

그는 하루에 한 번은 샐러드를 먹는다. 무언가를 향상, 자주, 많이 먹어온 그는 밥을 대신할 주식으로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다. 노동 집약적이지만 효율은 떨어지는 '한식의 프로세스'를 경험하며 '좀 가볍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샐러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재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다. 첫째도 물기 제거, 둘째도 물기 제거, 셋째도 물기 제거 그는 연한 잎에 집요하게 들러붙은 물기를 없애 뒤 모든 것이 잠시 위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샐러드를 즐긴다.

자칭 '초록주의자'라는 소설가 한은형의 '오늘도 초록'은 '샐러드 연주자'로 첫 장이 열린다. 음식이나 요리에 관한 글을 써온 작가는 초록을 두고 한없이 뻗어나가는 세계를 이 책에 담아냈다.

그는 시금치 대신 시소잎을 넣어 김밥을 만든다. 연포탕 속 낙지 보다는 미나리의 향긋함에 더 집중한다. 아보카도가 적절히 익은 때를 잘라보지 않고도 오직 손끝으로 알아차린다.

신선한 허브를 구하지 못할까봐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태풍의 경로를 확인한다는 그의 초록초록 한 식탁엔 우리에게 친숙한 상추, 깻잎, 오이에서 국경을 넘어 외국 의 낯선 야채들까지 오른다. 돌마 데스로 불리는 포도잎 찜밥, 타르 타르 스테이크에 곁들여 먹는 각종 민트, 태국 음식에 자주 쓰이는 갈랑갈과 카피르 라임잎, 몽근히 익히거나 때로는 날것인 야채를 소스에 찍어 먹는 이탈리아 요리 바나 카우다 등이다.

작가는 표피의 색이 초록이 아니라더라도 거기에서 초록의 기운이 는



껴진다고 했다. 그는 땅에 씨앗을 뿌려 자라는 식물들 거의 전부를 초록이라 칭한다. 그래서 양파, 가지, 파프리카, 버섯, 당근 등에도 그의 남다른 야채 사랑이 미친다.

야채에 대한 이야기를 열광적으로 풀어내고 있지만 채식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어떤 음식들과도 잘 어울리는 야채들의 친화력, 밥상 위의 조연이 아닌 그 자체로 메인 메뉴가 되는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세미콜론, 1만1200원. 전선희기자

이 책 제주4·3 추념시집



4·3 72주년 추념식. 4·3 진상규명운동의 여정에 제주 시인들은 서로 힘을 보태왔다.

"상처 아물고 새살 돋게 오늘도 쓴다"



어떤 물음에 대한 답이다. '그건/무엇보다 스스로 히틀러가 되고 이승만이 되었기 때문이다/ 총이라는 완장 그 무기의 권력에 자신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학살의 방아쇠를 당겼던 것이다/ 아무런 죄의식 없으니 반성하는 놈 하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들이 대낮에도 버젓이 준동하고 있는 것이다'. 김경훈 시인의 '어떻게 해서 그런 잔인한 학살이 있었느냐 하면,'이란 시의 한 대목은 오늘날까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그날을 말한다.

김경훈 시인처럼 제주 작가들은 제문(祭文)처럼, 격문(檄文)처럼, 때론 다듬어지지 않은 성명서나 뼈라처럼 해마다 멈추지 않고 4·3이라는 시 한편을 써왔다. 그 시들은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의 첫 삽을 들때부터 그곳 정문에 걸렸다. 코로나19 여파로 집합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올해도 시기만 조금 늦춰졌을 뿐 어김없이 독자들 만나고 있다.

제주작가회의(회장 강덕환)가 8월 31일까지 열리는 4·3 72주년 시화전 작품을 모은 창작집을 엮었다. 제주4·3 추념시집 '흩어진 신발을 모아 짝을 맞추는'이다.

이 시집엔 지난해 시화전 작품을 포함 시인 74명이 내놓은 110여 편이 실렸다. 문학단체를 달리하는 도내의 작가들이 제주의 4월이 전하는 사연을 노래했다.

지금 우리가 제주 오름, 숲길, 동백 너머에 숨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건 탄압을 견디며 4·3을 발화해온 덕이다. 그 노정에 4·3을 문학에 담은 제주 작가들이 있었다. 4·3 당시 60여 명이 희생되었다는 학살터 '도령마루'가 70년을 넘긴 지난해에야 이름을 바꾼 일도 그들의 공이 컸다. 흑자들은 '이젠 지제(止祭)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타박하지만 4·3 흔들기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4·3 시를 '진실'할 수 밖에 없다.

제주작가회의는 시집 서문에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경위나 규모야 다를 수 있겠지만 방방곡곡 어디든 4·3과 비슷한 아픔을 겪지 않았던 곳이 있었던가"라며 "그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도록 시인들이 마다않고 부조하고 보시했기에" 시화전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했다. 파우스트, 비매품.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한라일보 갤러리ED 개관기념
변시지·강승희·채기선 초대전

제주, 제주 너머

2020. 4. 18 SAT - 7. 17 FRI

변시지 / 강승희 / 채기선 초대전

GalleryED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F
Tel. 064-750-2530

관람시간안내 평일 11:00-18:00 주말(土,日) 11:00-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